

# 중외공원 무지개 다리 목포 유달산 조각공원 누가 만들었을까?

사람이  
문화자산이다

<27>조각가 김영중과 장성



중외공원문화벨트를 연결하는 무지개다리는 조각가 김영중이 설계한 것으로, 광주의 관문을 알리는 랜드마크로 손색이 없다.

/광주일보 DB



김영중 작 '평화행진곡'



김영중 작 '불굴의 한국인상'

**호** 남고속도로에서 서광주 인터체인지로 진입하다 보면 오색의 육교가 눈에 들어온다. 광주의 관문 무지개다리다. 타 지역에 나갔다가 밤새 고속도로를 달려 온 경험이 있는 이들은 알 것이다. 새벽 미명 너머로 무지개다리가 보일 때, 왠지 모를 안도감과 빠져들었던 기억을, 무지개 다리는 그렇게 어머니의 품 같은 따스한 정을 선물한다.

광주의 관문에 자리한 무지개다리는 예향의 명물로 손색이 없다. 오색의 반월형 형상은 누구에게나 친근감을 준다. 우리의 전통 유적 가운데 '흥예교'라는 다리가 있다. 보물로 지정된 별교의 흥교(304호)도 무지개 형상을 띤다. 두 무지개다리는 다른 재질로 형상화됐지만, 남도의 특징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맥락의 '작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외문화벨트를 연결하는 무지개다리를 누가 설계했는지 아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 (물론 문화와 예술에 관심 있는 이들은 논외로 한다.) 일반인들에게 그 오색의 다리는 광주의 관문을 알리는 랜드마크쯤으로 기억되는 게 일반적이다.

장성 출신의 조각가 김영중(1926~2005). 무지개다리는 그가 설계한 조형물이다. 지난 95년 제1회 광주비엔날레 창설 당시, 그는 이 작품을 통해 광주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미학적으로 구현했다. 최루탄과 저항으로 점철된 무거운 이미지에서 인권과 예술, 자유와 평화의 공존하는 도시를 상징한 것이다.

김영중이라는 이름을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의 작품을 의미 있는 공간에서 볼 수 있다. 세종문화회관 외벽의 '비천상', 천안 독립기념관의 '불굴의 한국인상', 을림박물관 준공탑, '3·1운동 기념탑', 광주고속버스터미널 야외광장의 '고향', 광주문화예술회관의 '예술+행위+도약'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잠시 조각이 지닌 이미지와 힘에 대해 살펴보자. "조각은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말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일례로 1991년 구소련의 몰락으로 레닌 동상이 철거됐다. 우리도 4·19 당시 이승만 동상이 시민들에 의해 질질 끌려 다니기도 했다. 조각이 권력을 상징하는 명징한 표식이었다는 방증이다.

한편으로 조각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가장 웅장하면서도 아름답게 드러내기도 하다.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이 수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보편적 가치를

지지는 상징물로 인식된다.

조은정 박사는 저서 '조각 감상법'(대원사)에서 "조각의 힘은 그가 점유한 공간에서 파생되어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실재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조 박사는 "조각은 주변의 공기를 호흡하고 그 공간을 음미하며 손으로 만져서 얻어지는 예술이기 때문이며 생활에 침투하는 미술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현대미술에 있어서 조각은 점차 영역이 확장되고 진화하는 추세지만 선과 면, 양감, 공간 등 조형 요소는 모든 작품의 기본이 된다. 조각가 김영중이 뛰어난 예술가이자 한국 비구상조각의 태두로 평가되는 것은 조형성이 주는 깊이와 심오한 아름다움 때문이다. 선과 면이 어우러지는 기하학적인 미는 질서와 상상이라는 이질적인 층위를 조화롭게 수용한다.

"제작실에서 밖을 나오면 목하에 보이는 풍경이 아

광주시립미술관 홍윤리 학예사는 "김영중은 당시 훌륭한 선생님들에게 대성 등 기초를 충실히 배운 것 같다"며 "이후의 독창적인 조형세계 구축은 본인의 피나는 노력과 스승들의 지도가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영중은 서울대, 홍익대 출신 젊은 조각가들과 '원형회'를 만들어 새로운 조형 양식을 추구한다. 김영학, 김찬식, 전성범, 최기원, 이운식 등과 함께 전위조각의 새 지층을 형성하는 데 매진한다. 이후 중앙대, 건국대, 이화여대 등에서 교수를 역임하며 후진을 양성한다.

한편으로 김영중은 활발한 작품 활동뿐 아니라 미술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서도 매진했다. '현대미술진흥법', '미술관법' 등 제정을 위해 앞장섰으며 1982년 목포 유달산에 한국 최초 조각공원을 조성했다. 95년에는 광주 비엔날레 창설 주역으로 남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도 헌신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다시피 김영중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한국 조각사의 기념비적인 작가인 그가 남도 출신(장성)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도 드물다. 건축사인 그의 장남 명수(50) 씨는 "아버지는 광주와 장성을 비롯한 남도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다. 특별히 장성은 당시의 고향이라 조각 관련 작업도 많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씨는 "아버지는 하서 김인후가 배향된 필암서원을 자주 찾았는데, 서울 인사동에서 구입한 필암서원 관련 고서도 많이 기증도 했다"고 말했다.

울산 김씨인 김인후가 윗대 조상이기 때문에, 김영중의 예술에는 하서의 철학과 접맥되는 부분이 있다. 생전의 그가 하서의 '천명도'(하늘의 이치를 그린 도상)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던 건 그 때문이다.

지난 5일 광주시립미술관에서 개막한 '우호(又湖) 김영중-평화행진곡'(5월 1일까지)은 그의 사후에 열린 첫 번째 개인전이다. 30일 문화가 있는 날은 그의 생애와 예술 세계를 조명하는 학술세미나(1시 30분~5시)도 갖는다.

그러나 정작 맺지 못한 장성에서는 김영중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다. 그를 기념하거나 회고할 만한 공간도 없고 행사를 개최한 적도 없다. 특히 옐로우시티를 표방하는 장성의 중심 황룡강 일대는 김영중의 생각이 있는 곳이다. 황룡 출신의 조각가 김영중이 빠진 옐로우시티 장성은 공허한 수사가 아닐까.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비엔날레 창설 주역...현대미술진흥법 제정 앞장 세종문화회관 외벽 비천상 등 한국 조각사 족적 남겨 시립미술관 사후 전시회...고향 장성엔 기념공간 없어

름다워 보인다... 열심히 작품하였다. 나의 영원히 남을 기념적 동상 그린다. 이것은 초상에 한한 것이 아니요, 종교적이라야 되며 기념적이라야 되며 초상적이라야 된다. 이것이 될 것일까. 작가로서 영원한 숙제로 삼아야 될 것을 지금 나의 실력으로 말할 수 있을까. 내일 또 열심히 해보는 수밖에 없다." (1960년 1월 11일 일기 중에서)

김영중은 그렇게 조각을 일생의 화두 삼아 정진했다. 공간에 질서를 부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의 조각이 특별한 아우라를 발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조각의 길로 들어섰을까. 일제시대 광주 농업고등학교생이었던 그는 실습시간이 힘들었던 모양이다. 어느 날 미술반 학생들이 이젤을 놓고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 산들바람이 부는 곳에서 빛깔을 하는 미술반은 영락없는 '신선놀음'으로 비쳐졌다.

1948년 그는 마침내 서울대 미술학부에 입학한다. 그러나 6·26 발발로 학업을 중단하고 얼마 후 신안 안좌도 출신 김환기 화가가 있는 홍익대로 편입한다. 이때 조각가 윤호중 등 당대의 뛰어난 미술가들로부터 지도를 받는다.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 전천후 시공성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 시공후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